

# “권위있는 과학전문 출판사를 바란다”

## 전문 편집인 부족·표기 혼란·주제 편중 등 문제점도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과학사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활발한 과학 관련도서 출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래 과학기술 도서의 출판을 전문으로 하던 출판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을 주로 하던 출판사들도 새로이 과학 출판 부서를 신설하는 등 매우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책이 출판되고 있고 또한 여러 출판사들이 다양한 형식의 과학 관련도서들의 출판을 기획하고 있지만, 현재의 과학출판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학계에 있는 필자나 출판의 당사자인 전문 출판인들을 포함해서 별로 없을 것이다.

### 과학출판에 필요한 제반여건의 빈약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출판 분야에서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의욕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분명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선 과학출판에 필요한 제반 조건이 빈약하다는 우리의 출판현실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판계에서는 과학출판에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적인 편집인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수많은 출판사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출판계는 주로 인문·사회 계통 출신자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막상 과학출판을 하려고 하는 지금 과학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유경험자들을 출판계에서 찾아보기란 매우 힘든 형편이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문과와 이과를 너무 일찍부터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구별해 놓고 있고, 대학에서도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서로간에 지식을 교류하기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과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출판계에 종사할 때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을 쌓기가 힘들다는 것도 제도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교육제도상의 문제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과학용어 자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과학출판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등을 위시한 각각의 전문 학회별로 선정된 용어가 서로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분야에 있는 학자들끼리도 사람에 따라서 같은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용어를 쓰고 있다. 교육부에서 초·중등학교의 교재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편수 자료가 있다고 하지만,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 우리나라 과학출판은 최근 출판사의

### 적극적인 의욕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는

### 우선 전문적인 편집인들이 상당히

### 부족하고, 과학용어가 통일되지 않거나

### 고유명사에 대한 외래어 표기법이

### 혼란스러운 점 등 출판외적인 것

### 외에도 기획물이 지나치게

### 사회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번역서

### 일색인 점 등의 문제가 산재해 있다.

있고 또한 새로운 학문 분야가 속출하고 있는 20세기 후반의 급속한 변화에는 현실적으로 체계적인 부응을 하고 있지 못하다. 어떤 경우에는 교육부 편수자료조차 불완전한 면이 있어서 과학분야의 책을 출판하는 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학계에서조차 과학용어가 통일되고 있지 못한 현실적인 제약성 때문에, 과학분야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편집인이 과학분야의 원고를 번역하거나 교정할 때 오역할 확률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전문용어는 그렇다 치더라도 과학출판에서 인명과 지명을 포함한 고유명사에 대한 외래어 표기법의 혼란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와 있는 것 같다. 우선 전문 과학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감각이나 표기법 자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까닭에 과학도서를 출판하는 편집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가 그대로 방치된 채로 출판되기 일쑤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비교적 쉬운 내용의 과학도서나 만화식으로 만든 도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 기획물의 다양성·독창성도 부족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출판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출판기획에 있어서 그 다양성과 독창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매년 출판되는 책의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기획물이나 시리즈물들도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다. 쉬운 예로, 한동안 아인

슈타인과 상대성이론 그리고 우주론에 관한 서적들은 과학출판의 대명사로까지 불릴 정도였다. 얼마 전에는 비선형동역학 분야인 카오스 분야가 과학출판에서 히트를 치자 여러 출판사에서 이와 비슷한 출판을 기획하기도 했다. 작년에는 인간 유전자 조작과 우생학의 문제점과 관련된 사회생물학 분야의 저작이 여러 출판사에서 동시에 쏟아져 나왔다. 물론 이 분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과학출판이 다양한 분야를 다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유행에 따라 몇몇 주제가 편중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되지 못한다.

90년대에 나타난 과학출판 기획의 또다른 특징은 내용과 형식이 비슷비슷한 개설서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알기 쉬운...’ ‘재미있는...’ 등으로 대변되는 이런 과학출판 분위기는 대학입시에서 눈높이 중요시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과학을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하는 것은 과학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이런 개설서 못지않게 상업성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수준높은 교양 과학도서의 출판도 문화사업의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출판되는 과학도서 주제의 편중성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과학출판은 지나치게 할 정도로 번역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다. 국내 집필 도서보다 번역서가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아직 과학분야를 대중에게 알기 쉽게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전문적인 과학분야의 저술인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교양과학 분야의 전문적인 번역가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과학분야에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인문학적 감각을 고루 갖춘 집필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갖추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집필을 강조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독단적인 견해나 신비적인 생각을 담은 생각이 난립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서평 체계를 확립해서 이를 철저히 견제하여야 할 것이다.

만화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관련서적 가운데에는 과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보다는 과학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과학만능주의적인 환상을 심어주거나 심지어는 신비적인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등 흥미 위주의 내용이 많다. 이런 책들은 청소년들에게

어릴 때부터 과학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심어 주고 결과적으로 반과학적인 태도를 사회에 만연하게 만든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학대중화 운동을 선도하는 과학출판이 항상 명심하며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의 개념을 정확하게 소개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어느 정도 딱딱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약간 건조하긴 해도 정확한 내용을 갖춘 책이, 재미는 있지만 완전히 틀린 내용을 전달하는 책보다는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18세기에 유럽에서 나타났던 계몽사조기는 역사상 과학의 대중화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알기 쉬운 뉴턴’ ‘여성을 위한 뉴턴’ 등과 같은 수많은 뉴턴역학 개설서가 출판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적인 과학교육이 일반직업인과 대중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실시되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계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하에서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과학대중화 작업이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례가 있다.


이제 모처럼 다시 일기 시작한 과학출판의 분위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과학대중화 작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과학전문 출판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과학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스프링거 출판사’(Springer-Verlag)에 필적하는 권위있는 과학분야의 전문 출판사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서울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수문회관 1203호  
전화 738-5420 팩스 722-8238

디자인 예원은 5년째  
출판과 관계된 모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포지디자인



포지디자인  
본문편집  
일러스트  
출판대행